

韓中 正史에 나타난 太白星 출현의 의미*

장정해**

< 목 차 >

1. 머리말
2. 중국 正史 속의 태백성 출현의 의미
3. 한국 正史 속의 태백성 출현의 의미
4. 마무리

1. 머리말

중국은 오랜 천문 관측의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이다. 그 방대한 관측 기록은 역대의 천문가들에 의해서 오랜 시일동안 꼼꼼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나 중국의 고대의 천문학은 순수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종교이자 정치적인 분야였기 때문에 우주에 자체에 대한 탐구를 해보고자 하는 시도보다는 현상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것에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周易·繫辭上》에는 “하늘이 현상을 드러내서 길흉을 보여주면 성인이 이를 본받는다. (天垂象, 見吉凶, 聖人象之)” 라고 하여 유가의 전통적인 天人感應의 세계관이 나타나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중국의 천문학이 점성학의 영역에 속하며 애초부터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교의 덕치주의를 구현하고자 했던 중국 고대의 군주들은 천문이변 현상들을

* 이 논문은 2006년도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연구된 것임

** 한신대학교 중국문화정보학부 교수

하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행위를 성찰하였기 때문에 천문현상에 관한 관측과 기록을 중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내세웠던 고려와 조선의 왕들도 천문현상을 정치와의 연계선상에서 이해하였는데 고려나 조선시기의 천문기록과 해석을 살펴보면 중국의 천문관 특히 漢唐代 天人相應說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문헌 속에서 발견되는 천문관의 유사성은 지금까지는 주로 전체적인 천문사상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¹⁾ 여기서는 개별적인 天文災異 현상이나 천체들에 부여한 상징의미 등의 비교를 통해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논문에서 韓中 양국의 正史에 기록된 태백성 출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중국과 한국의 천문기들이 이 별의 출현에 대해서 어떤 관측기록과 해석을 남겼으며, 그러한 해석들이 실제 정치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2. 중국 正史 속의 태백성 출현의 의미

태백성(太白星)은 즉 금성(金星)이다. 태양계의 아홉 개 행성 중 두 번째 궤도를 돌고 있으며 행성 중 가장 밝아서 대낮에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로서 새벽에 동쪽에서 떠오를 때는 '啓明'으로, 저녁에 서쪽에서 뜰 때는 '長庚'이나 '太白'이란 이름으로 지칭되었다.²⁾ 《史記·天官書》에는 이 밖에도 '殷星', '太正', '營星', '觀星', '宮星', '明星', '大衰', '大澤', '終星', '大相', '天浩', '序星', '月緯' 등의 한대 이전의 이 별의 異稱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태백성이 다른 별에 비해서도 유난히 많은 명칭을

1) 이 방면의 기존의 연구 성과로는 이희덕, 〈高麗時代의 天文思想〉(《國史館論叢》제 6집, 1995), 김일권, 《古代中國과 韓國의 天文思想》(서울대학교종교학과 박사논문, 1999) 등이 있다.

2) 《詩經·小雅·大東》: "쪽에는 계명성이 있고, 서쪽에는 장경성이 있다. (東有啓明, 西有長庚)." 東晉 郭璞 《爾雅·釋天》注: "새벽에 동방에서 나타나는 것을 계명성이라 하고 저녁에 서쪽에 서 나타나는 것을 태백이라고 한다. (晨見東方爲啓明, 昏見西方爲太白)."

가지고 있었음은 하루에 두 번 나타난다는 점과 밝아서 눈에 잘 띄었다는 특징 때문일 것이다.³⁾ ‘太白’은 ‘크고 밝다’는 의미로서 고대에 이 별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金星이란 명칭은 오행 설이 성행한 이후에 붙여진 것이다.

중국의 천문기록을 살펴보면 태백성은 그 자체로 전쟁을 주관하는 별로 여겨지거나 큰 인물을 상징하기도 했는데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이것의 출현이 災難의 전조로 간주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태백성의 출현이 암시하는 이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자료의 범위는 태백성의 속성이 확립된 漢唐시기의 正史에 실려 있는 천문기록들에 국한될 것임도 아울러 밝혀둔다.

1). 災異의 전조

태백성의 운행 위치나 속도, 방법, 밝기, 색깔 등이 정상적이 아닌 상태로 출현했을 때 일반적으로 흉조로 간주된다. 중국 사서에 기록된 태백성의 星變현상은 무수히 많아서 일일이 검토하기는 힘들고 여기에서는 역대의 사서에서 가장 큰 재난의 전조로 간주했던 ‘太白晝見’, ‘太白經天’ 현상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고대 중국사회에서 천체의 이변현상으로 가장 중대하게 인식되었던 것은 ‘日蝕’과 ‘月蝕’이었으며 혜성의 출현이나 五星의 星變 현상 중의 하나인 ‘熒惑守心’ ‘五星聚舍’ 등도 중대한 재난의 전조로 여겨졌다. ‘太白晝見, 經天’의 현상도 매우 불길한 사건을 예시하는 전조로 여겨졌는데 이에 대한 《史記》와 《漢書》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태백성이 출현할 때 경천하지 않는데 만약 경천한다면 천하에 혁명이 일어

3) 《開元占經》(唐 瞿曇悉達編, 李克和校點, 長沙, 岳麓書社, 1994) 卷45 太白占一) 은石申의 천문서를 인용하여 태백성의 異稱을 ‘殷星’, ‘太正’, ‘營星’, ‘明星’, ‘觀星’, ‘大衣’, ‘大威’, ‘太暉’, ‘終星’, ‘大相’, ‘大羅’, ‘爽星’, ‘太皓’, ‘序星’ 으로 적고 있다.

날 것이다. (其出不經天, 經天, 天下革政.) (《史記·天官書》)

태백이 경천하면 혁명이 일어나 백성들이 왕을 바꾸게 되는데 이를 난기라고 하며 백성들이 흩어지게 된다. 낮에 보이고 해와 밝음을 다투다면 강국은 약해지고 소국이 강해질 것이며 황후가 창성할 것이다. (太白經天, 天下革, 民更王, 是爲亂紀, 人民流亡, 晝見與日爭明, 疆國弱, 小國疆, 女主昌) (《漢書·天文志》)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는 것을 ‘晝見’이라 한다.⁴⁾ 太白晝見은 임금을 상징하는 태양이 약해져서 陰星인 태백성과 밝음을 다투게 되는 현상으로 여겨졌는데 이 결과로 태백성과 같은 陰에 속하는 弱國이나 女主가 창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태백성이 午時(오전 11시 ~ 오후 1시)가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은 현상을 ‘經天’이라고 하는데 ‘晝見’보다 ‘經天’이 더 큰 이변으로 간주되어서 왕위 찬탈이나 혁명, 兵亂의 조짐 등으로 해석되었다.⁵⁾

(唐) 《開元占經》에 의하면 태백주현, 경천의 현상은 전설의 천문가들인 商의 재상이었다는 ‘巫咸’ 전국시기 魏의 ‘石申’ 齊의 ‘甘德’ 시기에 이미 관찰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천하에 혁명이 일어나거나 병란이 일어나서 왕이 죽게 되며 백성들이 죽거나 흩어지고 서쪽에 있는 나라(秦)가 창성하며 강대한 나라가 불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자료의 신빙성 문제를 감안하여 이것들이 이 현상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라고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의 기록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⁶⁾

4) 박창범·라대일은 <삼국시기 천문현상 기록의 독자관측 사실 검증> (《한국과학사학회지》 제16권, 제2호, 1994)에서 관찰하기 좋은 기상조건에서 주의 깊게 관찰하면 금성은 어느 때나 낮에 볼 수 있으나 ‘태백주현’은 금성이 태양에서 최대이각을 가지고 멀리 떨어져 가장 밝아지는 시기에 기록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p. 180)

5) 《史記索隱》: 晝灼 “해는 양이다. 해가 뜨면 별들이 진다. 태백이 대낮에 나타나 오시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것을 경천이라고 한다. (日, 陽也. 日出則星沒, 太白晝見, 午上爲經天)” 孟康 “태백은 음의 속성을 가진 별이다. (太白, 陰星)”

6) 《開元占經》卷46 《太白占二》: “무함이 말하길 태백성이 부당하게 중천을 지나가면 이를 일러 절강이라 하는데 사국이 병란을 일으킨다라고 했다. (巫咸曰: 太白不當過中, 是謂絕綱, 四國兵起). “무함이 말하길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면 음이 밝게 되는 것이니 내년에 강국에 상이 있게 된다고 했다. (巫咸曰: 太白晝見, 是謂陰明, 來年強國有喪).” “적씨가 말하길 무릇 태백성은 경천을 하지 않는 법이나 만약 경천한다면 천하에 혁명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군주를 바꾼다.

《後漢書》에서는 太白晝見, 經天 현상을 이전보다 더욱 주목하여 관찰했는데 왕권이 쇠약해지는 시기에 이러한 기록이 더욱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後漢書·天文志》에는 다량의 관측 기록이 전한다.

태백성은 장군의 관직을 말하며 서주를 가리킨다. 낮에 나타난 것은 음의 기운이 성하여 임금과 밝음을 다투었기 때문이다..... 이 때에 대장군 양상부자가 세력을 잡고 있었으므로 태백성이 자주 낮에 나타났다. (太白者將軍之官, 又爲西州. 晝見, 陰盛, 與君爭明.....是時大將軍梁商父子秉勢, 故太白常晝見也.)

(연희6년11월)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는데 이 때에 등황후의 세력이 강성하였다. (太白晝見, 是時鄧后家貴盛.)

後漢은 順帝(재위기간: 125-144) 때부터 황권이 흔들리면서 붕괴의 길을 걷는다. 외척이었던 梁商과 그의 아들 梁冀는 順帝 시기부터 沖帝, 質帝, 桓帝(146-167) 시기까지 차례로 대장군에 임명되어 (135년~157년) 국정을 전횡하였다. 양기가 죽은 후에는 鄧씨의 딸이 皇后가 되어 등씨 가문이 강성해졌는데 《후한서·천문지》에는 이 시기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천체현상의 발생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시기는 태백성의 이변 중에서도 ‘經天’ 보다는 ‘晝見’의 기록이 많고 태백성이 주로 將軍, 強臣에 비유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외척들이 득세하여 신하가 임금의 권력을 빼앗는 사회상황이 마치 전통적으로 太白晝見이 예고하는 ‘晝見與日爭明’, ‘女主昌’의 상황과 같아서 결과로서 기록된 것이다 7)

이를 난기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흩어지게 된다고 했다. (石氏曰: 凡太白不經天, 若經天, 天下革政, 民更主, 是謂亂紀, 人民流亡), “석씨가 말하길 태백성이 경천하여 오시에 나타나면 진이 왕이 되며 천하가 크게 혼란해진다라고 했다. (石氏曰: 太白經天見午上, 秦國王, 天下大亂), “감씨가 이르길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면 천자가 죽고 천하가 왕을 바꾸며 대란이 일어난다. 이를 경천이라고 하는데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모두 흩어진다라고 했다. (甘氏曰 太白晝見, 天子有喪, 天下更王大亂, 是謂經天, 有亡國, 百姓皆有亡.)”

7) 박성래 교수는 <이태진교수 “소빙기의 천체현상적 원인 - 《조선왕조실록》의 관련 기록 분석> (《역사학보》 제149) 에서 제이는 그 역할을 인정받을 때 기록되어 남는다고 했는데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기록된 태백주현의 현상들은 당시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p. 242)

태백성의 이변은 《후한서》 이후에 《晉書》,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등의 천문기록에서 무수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 현상들이 몰고 올 재난이 王權과 관계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이들 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태백성의 이변현상과 그것에 상응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太白晝見, 經天의 의미에 맞는 현상들을 현실에서 찾아서 대비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흥미로운 사건이 武則天의 등극과 관련된 기사일 것이다. 《資治通鑑》 貞觀 22년 7월의 기록에는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다.

무런현 공무안 출신의 좌무위장군 이군선이 현무문을 지키고 있을 때였다. 당시에 태백성이 대낮에 자꾸 나타나는데 태사 이순풍이 점을 친후 말하길 “이는 여황제가 창성할 조짐입니다.” 또 항간의 비기에 “당나라는 3대가 지난 이후에 무씨 성을 가진 여황제가 천하의 주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니 태종이 몹시 언짢아했다. 태종이 여러 무신들을 모아서 궁중에서 연회를 베풀고 술을 마시게 하고는 각자 어렸을 때 이름을 말하게 했다. 이군선이 오랑이라고 말하자 태종이 불쾌하게 여겼다. (左武衛將軍武連縣公武安李君羨直玄武門, 時太白屢晝見, 太史占云: “女主昌.” 民間又傳秘記云: “唐三世之後, 女王武王代有天下.” 上惡之. 會與諸武臣宮宴中, 行酒令, 使各言小名. 君羨自言名五娘’, 上惡然.)

《資治通鑑》에는 이 아래에 李君羨의 兒名이 여자이름이고 관명과 출신지 이름에 모두 ‘武’ 자가 들어있어 태종이 그를 秘記의 주인공으로 오인하고 주살하였다는 내용이 있다.⁸⁾ 武則天 사후 백여 년 후에 기록된 설화집 《談賓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을 보아서 이 고사는 여기에 기록되기 이전에도 唐代 사회에서 이미 널리 회자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⁹⁾ 《談賓錄》은 《譚賓錄》이라고도 하며 唐 文宗, 武宗 시기(827 - 846)의 책이다.¹⁰⁾ 《談賓錄》과 위의 내용을

8) 《武則天評傳》을 쓴 趙文潤, 王雙懷는 이 기록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武則天이 황제가 된 원인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서 천명의 산물로 돌린 것이며 李君羨의 死因이 당시 역사가들에 의해 이용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택중 등 역, 서울: 책과함께, 2004, pp. 70 - 72)

9) 武則天이란 여자 제왕의 출현은 이전의 어떤 왕조교체보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므로 당시 혹은 武則天 사후에 민간에 武則天에 대한 전설이 많이 유행하였다. 이에 대해선 줄고, 〈武則天 설화에 나타난 예언과 징조〉 (《중국어문학지》 제14집, 2003.12)를 참고.

10) 《談賓錄》: 당태종 시기에 당나라 삼대 이후에 여자 임금 무왕이 나타나 천하를 지배할 것이

비교해보면 《談賓錄》에는 “신이 현상에 의거하여 추산해보니 그 징조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臣據玄象推算, 其兆已成)” 라고 했었는데 《자치통감》에는 “태백성이 대낮에 자주 나타나났다. (太白屢晝見)” 하여 현상의 내용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 구분된다. 위에서 太史관 李淳風을 말하는데 그는 唐太宗, 高宗 시기에 太史丞을 역임했고 天文曆法에 정통했던 사람이다. 그가 점을 쳐서 얻은 “女主昌”이란 결론은 과거에는 황후나 태후 등의 세력이 창성하게 됨을 가리켰으나 여기에서는 여자황제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이 되었으니 같은 占辭도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 전쟁의 주관자

고대에는 五星의 離合集散을 관찰하여 용병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五星의 움직임은 세밀하게 관찰되어 전술에 응용되었는데 그 중에서 태백성은 전쟁을 상징하는 죽음, 西方, 金 등의 속성과 연관되어 예로부터 전쟁을 주관하는 별¹¹⁾로서 중시되었다. 《漢書·天文志》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라고 쓰인 비기가 있었으므로 태종이 은밀히 이순풍을 불러 그 일을 물었다. 이순풍은 “신이 현상에 의거하여 추산해보니 그 징조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 장본인 또한 이미 폐하의 궁궐 안에 살고 있으며 지금으로부터 사십 년이 지나기 전에 천하를 지배할 것이며 이씨 자손들을 주살하여 거의 죽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태종이 “죽여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자 이순풍은 “천지가 명하신 것은 폐할 수가 없으며 제왕은 죽지 않기 때문에 설령 그리하고 자 하셔도 뜻을 이룰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더구나 점을 쳐보니 그자는 이미 장성하여 궁궐 안에 이미 폐하의 권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사십 년이 지나면 늙고 쇠약해 질 것입니다. 늙으면 인자해지는 법이니 어쩌면 폐하의 자손에게 심한 손해를 끼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죽으신다면 바로 다시 태어날 것이고, 다시 사십 년이 지나서 역시 또 천하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는 잔인한 법이라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벌어질 것이고 폐하의 자손들은 모두 죽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唐太宗之代, 有秘記云唐三代之後, 卽女主武王代有天下. 太宗密召李淳風以詢其事. 淳風對曰: “臣據玄象推算, 其兆已成. 然其人已生在陛下宮內. 從今不踰四十年, 當有天下, 誅殺唐氏子孫, 殆將殲盡”. 帝曰: “求而殺之如何?” 淳風曰: “天地所命, 不可廢也. 王者不死, 雖求恐不可得, 且據占已長成. 復在宮內, 已居陛下眷屬, 更四十年, 又當衰老. 老則仁慈, 其於陛下子孫, 或不甚損. 今若殺之, 卽當復生, 更四十年, 亦堪御天下矣. 小壯嚴毒, 殺之爲血讐, 卽陛下子孫無遺類矣.”) (《太平廣記》 권163)

11) 《史記·天官書》: 太白, 曰西方, 秋, 日庚辛, 主殺.

태백은 병의 형상이다. 나타나서 높이 지나가면 군사로 하여금 적진 깊숙이 들어가게 하면 길하지만 조금 들어가게 하면 흉하다. 낮게 나타나면 조금 들어가면 길하고 깊게 들어가면 흉하다. 운행속도가 빠르다면 군사를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면 길하고 늦으면 흉하다. 운행이 늦으면 군사를 느리게 움직이게 하면 길하고 빠르면 흉하다. 태백성이 각에 있다면 용감히 싸우면 길하고 싸우길 주저하면 흉하다. 각이 가리킨 곳을 치면 길하고 반대로 한다면 흉하다. 나가고 후퇴하고 좌우로 움직이면 용병도 나가고 후퇴하고 좌우로 움직이면 길하나 움직이지 않으면 흉하다. 조용히 움직이면 군사도 조용히 움직여야 길하고 조금하면 흉하다. 태백성이 나오면 군사도 나오고 들어가면 군사도 들어가라. 태백을 따라하면 길하고 반대이면 흉하다. (太白, 兵象也. 出而高, 用兵深吉淺凶. 埤, 淺吉深凶. 行疾, 用兵疾吉遲凶. 行遲, 用兵, 遲吉疾凶. 角, 敢戰吉, 不敢戰凶. 擊角所指吉, 逆之凶. 進退左右 用兵進退左右吉, 靜凶. 圓以靜, 用兵靜吉趨凶. 出則兵出, 入則兵入, 象太白吉, 反之凶.)

《사기·천관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태백성의 움직임을 따라 군사를 움직이면 좋고 반대로 하면 나쁘다는 것이다. 《사기》나 《한서》의 천문기록을 살펴보면 별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용병술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대이전의 천문학이 兵書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¹²⁾ 태백성의 움직임을 실제 용병술에 응용한 예를 《漢書·趙充國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제가 조서를 내려 조국충에게 이르시길: “오늘 오성이 동방에서 나타나니 중국이 크게 길할 것이고 오랑캐들이 크게 패할 것이다. 태백성이 높이 떴으니 군대가 적진에 깊이 들어가 용감히 싸운다면 길하겠고 용감히 싸우지 않는다면 흉하니 장군은 빨리 장비를 갖추고 천시를 의지하여 불의한 자들을 죽이라. 모든 것이 다 완비되었으니 조금도 주저하지 말라” 라고 하셨다. ((宣帝)以書勅驪充國曰:.....今五星出東方, 中國大利, 蠻夷大敗, 太白出高, 用兵深入敢戰者吉, 不敢戰者凶. 將軍急裝, 因天時, 誅不義, 萬下必全, 勿復有疑.)

기원전 61년 조국충이 西羌과의 전투에 앞서 차일피일 싸움을 미루자 漢宣帝

12) 천문과 병법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성구, 《중국고대의 주술적 사유와 제왕정치》(서울 일조각, 1997) pp. 222 - 247 참고.

가 조서를 내려 그를 재촉하였다. 조서에 쓰여 있는 ‘星出東方..... 太白出高, 用兵深入敢戰者吉, 不敢戰者凶.’ 이란 내용은 바로 <천문서>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당시에는 이 별을 관측하여 용병술의 지침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漢書·王莽傳》에도 이런 상황을 설명해주는 기록이 있다. 당시 王莽이 劉歆 등과 더불어 정변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유홍이 “당연히 태백성이 나타났을 때 움직여야 한다. (當待太白星出乃可)” 라고 하면서 군사를 움직이지 않아서 결국은 진압을 당해 모두 죽었다는 내용이다. 이 기록에서 보아도 태백성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는 별로서 인식되었고 실제로 용병술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¹³⁾ 이러한 관념은 후대에도 계승되어 《晉書·天文中》에는 “(태백성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용병 시에 모두 참고로 삼는다. (用兵皆象之)” 라고 하였고, 《新唐書·天文志》도 “태백은 전쟁의 상징이다. (太白 兵象)” 라고 적고 있다.

3) 인물상징

전통적으로 태양이 임금을 상징하는데 반해서 태백성은 그 별 자체로 신하를 상징한다. 신하란 大臣으로 將軍이나 上公 등 높은 관직의 인물을 말하는데 《史記·天官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태백은 대신으로 상공이라고 부른다. (太白大臣也, 其號上公)

《史記·天官書》正義는 《天官占》을 인용하여 “태백은 서방 금의 정령으로 백제의 아들이며 상공, 대장군의 형상이다. (太白者西方金之精, 白帝之子, 上公大將軍之象也.)” 라고 하여 태백성이 재상이나 대장군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였다. 후대에도 이런 관념은 계승되어 《晉書·天文中》에는 “태백은 대신을 주관하는 별이다. (太白主大臣)”, 《新唐書·天文志》는 “태백은 상공이다. (太白 上公)” 라고 적고 있

13) 江曉原, 《天學眞原》(遼寧教育出版社, 1991), pp. 160 - 163 참고.

다. 태백성이 높은 관직의 신하를 뜻하기 때문에 이 별의 움직임은 대신의 행동을 현시하는 것이 되어 관찰이나 감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천문관념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해몽서는 꿈에 태백성을 보면 훌륭한 인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明代 사람 陳士元이 편찬한 해몽서 《夢占逸旨 雷雨篇》에는 “장경성을 꿈에 보고 이백을 낳았다.”(長庚星葉李翰林)“ 라고 했는데 주석에 《新唐書》를 인용하여 “이백의 모친이 꿈에 장경성을 보고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별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 (李白母夢長庚星, 及生子, 因以命名.)” 라고 적고 있다.¹⁴⁾

삼국시기 吳의 孫堅도 태백성을 꿈에 보고 태어나 왕위에 올랐는데, 태몽이 태백성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어도 재위기간이 짧았다고 한다.¹⁵⁾ 해몽서와 천문서는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태백성을 보더라도 해몽서의 꿈 풀이가 천문 관념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한국 正史 속의 태백성 출현의 의미

한국에서 최초의 천문관측 기록은 신라 박혁거세 4년(기원전 54년)의 일식 기록이다. 《三國史記》에는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의 천문관측 기록이 실려 있는데 천문현상을 하늘의 예시로 생각하는 天人合一의 사상이 나타나 있다. 삼국시기의 천문학은 관찰기록 방법이나 천문관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전통은 조선 시기까지 계속된다.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역대의 한국 正史들을 살펴보면 태백성 출현의 의미가 중국과 동일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 災異의 전조로서 여겨졌던 ‘太白晝見, 經天’ 현상에 관한 내용이 다량 기록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14) 《古代占夢術注評》(北京師範大學校出版社, 1992), p. 59.

15) 《拾遺記》권 8 ‘吳’.

《삼국사기》에는 신라 제10대 임금 奈解王 5년(서기 200년) 가을 7월에 ‘太白晝見’ 현상이 처음 기록되었으며, 백제는 仇首王 11년(서기 224) 겨울 0 월 고구려는 陽原王 11년(서기 555) 겨울 11월에 각기 太白晝見의 기록이 있다. 이를 포함해서 《삼국사기》에는 모두 8 차례의 태백주현 현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로 5~7월, 10~11월에 관측되었고¹⁶⁾, 經天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태백주현의 기록은 삼국시기 천문현상 기록의 독자적 관측 사실을 검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며 더 나아가서 《삼국사기》의 사료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도 일조를 한다.¹⁷⁾

《삼국사기》에는 태백주현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이로 인해서 消災儀式을 행하거나 현실적으로 조치를 취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아서 중국적 災異觀念에 입각하여 현상들을 해석했으리라고 여겨진다.¹⁸⁾

고려와 조선시기에는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천문재이 관념이 널리 보급되고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사서에는 太白晝見, 經天 현상에 관해 많은 언급이 있게 된다.

(宣宗9년)에 태백이 낮에 나타나고 경천했으며 누벽진을 범했다 태사가 상주하길 “태백이 낮에 나타나면 3년 안에 큰상을 치를 것입니다”(太白晝見經天, 犯壘壁陣, 太史奏曰: “太白晝見, 3年必有大喪.”)(《高麗史》 권47 <天文1>)

(明宗17年) 가을 7월 정묘일에 태백이 낮에 나타나고 경천하였다 이사일에 는 날이 어둡고 일식이 있었다. 조원정 무리들이 모반을 하여 죽임을 당했다.

16) 《증보문헌통고(增補文獻通考)》 권6 《象緯考》에 의하면 《삼국사기》에서 太白晝見의 기록은 신라 元聖王 3년(787), 興德王 2년(827), 헌강왕 11년(885), 백제 比流王 18년(321), 阿莘王 3년(394)에 찾아 볼 수 있다.

17) 박창범·라대일은 <삼국시기 천문현상 기록의 독자관측 사실 검증>에서 《삼국사기》에 기록된 고대의 천문 관측기록들이 중국 기록을 차용했거나 꾸며낸 것이라는 일본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일침을 가하면서 《삼국사기》의 천문현상들이 독자적인 관측에 의한 기록임을 증명하였는데, 특히 천체역학적 계산에 의하여 太白晝見 현상의 관측이 독자적이었음을 검증해냄으로써 삼국이 수준 높은 천문 관측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밝혀내었다.

18) 이희덕은 <三國의 天災와 政治> (《한국고대자연관과 왕도정치》, 《한국연구총서》 54, 1994)에서 중국적 天人合一思想이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천문기록들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고 하였다.

(秋7月丁卯, 太白晝見經天, 己巳晦, 日食, 曹元正等謀亂伏誅) (《高麗史》 권 20 〈明宗世家〉)

근일(近日)에 혜성(彗星) 같은 요성(妖星)이 나타났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는데, 전사(前史)에서는 이런 것을 가리켜, 역란(逆亂)과 흉패(凶悖)로 여겨 비상(非常)한 악기(惡氣)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큰 혼란이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난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 19) 성종 21년)

이상은 고려와 조선시기의 태백주현, 경천의 현상을 기록한 기사들이다. 태백이 낮에 나타나면 장차 ‘큰상’을 당하게 되거나, ‘모반’이 일어나고 ‘혼란’이나 ‘난리’ 등의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漢代 이래로 태백주현이나 경천현상이 암시하는 내용과 같은 의미로 고려와 조선의 천문재이에 대한 인식이 중국 전통의 천문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재이관념이 고려와 조선 사회에 작용했던 영향력이다.

고려시기에는 태백성이 대낮에 나타나면 임금의 기우제를 지내거나 죄수들을 재심하였으며 道場을 설치하거나 正殿 피하고 修省하는 등의 여러 가지 消災 의식을 실행하였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明宗9년) 7월 갑무일에 태백일 경천하길 6일을 했다. 기묘일에 유성이 나타나니...태사가 상주하길 정진을 피하시고 명인전에 仁王道場을 설치하시던 10일간 설치하셔서 재난을 피해가소서 했다(7月 甲戌, 太白經天6日, 己卯, 流星出太史奏 避正殿 設仁王道場於明仁殿, 10日以禳災變) (《高麗史》 권48 〈天文2〉)

임신일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병자일에는 죄수들을 다시 심문하였다. (壬申, 太白晝見. 丙子 慮囚). (《고려사》 제35권 충숙왕 11년)

병신일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왕이 위구하여 궁궐 문의 경계를 엄중히 단속하라고 명령하였다. (《고려사》 공양왕 2년 20)

19) 국역 《조선왕조실록》 CD롬 참고, 이하 註 생략.
20) 《고려사》 CD롬 (누리미디어).

이와 같이 고려의 임금들이 태백주현, 경천을 하늘의 경고로 간주하고 그것을 기양하고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였는데 고려조에서 가장 빈번하게 시도된 消災방법은 道場의 설치였다. 즉 불교의식으로 재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이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²¹⁾

고려 말에는 원으로부터 유교사상을 철학화, 내면화한 성리학이 전파되었는데 유가들은 성리학에 입각하여 천재지변을 군주의 修身여부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尹紹宗(1345 - 1393)은 공양왕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한 양으로 천도를 하려고 하자 아래와 같은 상소를 올려 이를 저지한다.

옛날에 진(晉)나라 혜제(惠帝) 때에 피비가 내리고 태백성이 대낮에 나타난 후 태자와 왕후가 피살되고 그 후부터 종실들이 서로 살륙하여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졌으며 결국은 회제(懷帝), 민제(愍帝)가 유충(劉聰)에게 잡혀 가고 북방 이민족이 수백 년 동안 중국을 소란케 하였습니다. 또 당나라 고조(高祖) 때에 대낮에 태백성이 나타나서 경천(經天)하자 진왕(秦王)이 태자와 제왕(齊王) 원길(元吉)을 죽였습니다. 당나라 태종(太宗) 말기에 태백성이 누차 대낮에 나타난 후 무척천이 중종(中宗)을 폐하고 자기가 황제의 자리에 들어앉아 당나라를 없애고 국호를 주(周)라고 하고 당나라의 종실(宗室)들을 많이 학살하여 나라가 하마터면 망할 뻔하였습니다. 하늘이 내린 경고가 여찌 우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늦은 봄, 초여름인데 태백성이 누차 대낮에 나타났고 이번에 또 월 여를 두고 낮에 나타나서 경천(經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엄중하게 전하에게 경고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화초를 궁중에 늘어놓고 날마다 그것을 감상하고 있으며 또한 한양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 저에게는 전하의 경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직 부족한 것 같이 생각됩니다. 전하는 대, 요, 순, 삼왕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고 주공, 공자의 길을 자기의 길로 삼아서 부정한 말에 유혹되지 않고 덕정(德政)을 힘써서 하늘의 마음이 돌아서고 나라의 기초가 공고히 되게 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고려사》 제 120편 열전제 33)²²⁾

개혁론자이자 성리학자인 윤소종은 천재지변을 막고 이상적인 유교국가의 실

21) 고려시대는 수많은 도량과 번다한 불사로 인해서 막대한 국가재정을 축냈으며, 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어 민폐가 극심하였다. (최영성, 《한국유학사상사1》,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6, pp. 424 - 438 참고).

22) 《고려사》 CD롬.

현을 위해서는 군주가 수신해야하며 堯, 舜, 三王을 본받을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위의 상소에서 태백주현을 하늘이 내린 경고로 해석하고 이러한 하늘의 경고는 우연한 것이 아니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讖緯설이나 불교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임금이 덕을 닦고 선정을 펼치는 일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하였다.

비록 성리학에 입각하여 나라의 기초를 세웠다하나 조선조 초기에는 태백성이 나타나거나 하면 여전히 불교나 민간 신앙에 의지하여 소재의식을 거행하곤 하였다. 태종6년의 기사를 살펴보자.

인군(人君)으로 하여금 피방하여 거처하게 함으로써 재앙을 면하게 하려고 한 것은 바로 후세(後世)의 술가(術家)의 요사스런 말(妖言)입니다. 원컨대 진하게서는 은(殷)나라·주(周)나라에서 재앙을 없앤 방법을 몸받으시어 공구 수성(恐懼修省)하시면, 재앙이 변하여 상서(祥瑞)로 될 것이니, 비록 피방하시어 기양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성진(星辰)의 경계와 부영이(鵠鷲)의 변괴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근일에 태백성(太白星)이 대낮에 나타나고, 다시 현원성(軒轅星)을 범(犯)하게 되어, 내 마지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니, 그대들은 많은 말을 하지 말라.”(《조선왕조실록》 태종6년9월)

태종 초기에 부영이가 나타나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자 태종이 문밖으로 피방(避方)하려고 하였다. 유기들은 이런 현상을 하늘의 견고(譴告)로 보고 임금이 수성(修省)하여 하늘을 공경하며, 백성에게 부지런하시어, 하늘의 뜻에 보답하는 방법이 최선책임을 간언하며 태종을 막지만 태종은 민간신앙에 따라 결국 피방하였다. 민간신앙에 의지하는 것 이외에도 조선초기에는 도량을 설치하여 기양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다. 정종 2년 3월 15일 기사에는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자 “기양 문두루 도량(祈禳文豆屢道場)을 7일 동안 현성사(賢聖寺)에서 베풀었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아서 유교를 국시로 하여 탄생한 조선조도 초기에는 민간신앙과 불교적인 관습이 여전히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기는 전반적으로 천재이변을 天譴이라 여기고 천재지변에 대한 군왕의 책임론을 강조한 시기였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천변(天變)을 두려워하시어 허물을 스스로 인책(引責) 하셨으니, 반드시 재앙이 상서로 변하고 화가 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그 마음을 더욱 돈독하게 하여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게 하소서. (《조선왕조실록》 성종21년)

서울에서 태백이 주현(晝見)하고 또 지진의 변이 있으니 이보다 심한 큰 재변은 없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과 양이 조화되지 않아 천지의 기운이 차서를 잃어서 이 이변이 있는 것입니다.간사한 자가 악한 짓을 시작하고 궁위(宮闈)가 엄하지 않고 여알(女謁)이 성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중종32년 1월)

이와 같이 조선의 임금들은 먼저 재이의 원인을 찾고자 했으며 신하들은 임금에게 修省하게 하거나, 궁중의 폐단을 없애는 일을 건의하였으며 때로는 재상들의 책임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임금은 태백이 낮에 나타나면 減膳하고, 백성들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등 대처방법을 찾으려 애썼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천문현상을 하늘의 譴責으로 파악하고 왕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당시의 통치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태백주현이나 경천 이외에도 태백성이 兵法이나 인물 상징의 범주에서 언급되어지는 내용이 보이는데 아래와 같다.

왕이 이르시길: “태양의 흑점은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니 기양하지 말고, 태백이 나타난 것은 경들의 잘못 때문이니 기양하도록 하시오.” 라고 했다. (王曰: 日黑子, 咎在寡人, 勿禳, 太白應在卿相, 其禳之) (《高麗史》 恭愍王 19년 12월)

“장수가 이미 출발하였으니 사직과 종묘에 고하는 일은 마땅히 정지할 것이고, 그 지나가는 압록강의 제사와 현원 황제에게 마제(禱祭)하는 등의 일은 장수가 그때에 임하여 행할 것입니다. 《사전(史傳)》에는, 태백성이 나타난 뒤에야 나라를 정벌한다.’는 글이 있고, 또 《太一算書》에는 객리(客利)와 주리(主利)의 말이 있는데, 병법(兵法)에 먼저 동병(動兵) 하는 자가 객이 된다고 하였은즉, 지금 우리 군사가 먼저 동병 하였으니 곧 객이 됩니다. 이는 죽히 믿을 말이 아니나, 《사전(史傳)》과 《산서(算書)》를 함께 상고함이 어떠하옵

니까.” (《조선왕조실록》 세종15년2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신하를 태백성에 빗대었다거나, 用兵시에 태백성의 동태를 살펴 참고하려는 의도 등 중국 고대의 사서에서 언급되었던 태백성의 의미들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마무리

이상 중국 고대와 삼국, 고려, 조선 시기의 正史를 비교하여 천문 기록에 나타난 태백성의 출현의미를 살펴보았다. 태백성의 비정상적인 출현은 왕의 죽음, 왕조의 교체, 병란, 신하의 반란 등 큰 재난의 예고로 간주되었으며, 한편으로는 태백성은 전쟁을 상징하는 별로서 그 움직임을 잘 관찰하여 전술에 응용하기도 하였다. 태백성은 또한 신하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 이러한 천문학의 관념은 고대의 해몽서에도 영향을 주어서 태몽에서의 태백성은 큰 인물의 탄생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바로 신하의 상징물이란 이유로 태백의 움직임을 왕이 늘 감시해야 할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韓中 史書 속의 천문기록들을 살펴보면 태백성의 출현이 나타내는 의미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강조하는 해석 내용과 消災儀式이 조금씩 다를 뿐 그 원리는 漢代의 사서 속에 실려 있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고대 중국과 한국의 천문학이 천체 자체를 연구하고 과학적 원리를 발전하기 위한 변화하는 학문이 아닌 재래의 천문관을 답습하며 제왕의 정치에 도움을 주는 일종의 통치수단으로 줄곧 존재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심지어는 서양의 천문관념이 들어왔던 조선조 후기 철종 4년의 《조선왕조실록》 기사에 태백성의 변이를 포함한 천재지변을 雲觀들에게 보고받은 철종이 이 모든 재난을 자신의 부덕으로 돌리고 修省하고 삼일 동안 減膳과 撤樂하였던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아서

전통적인 천인감응설에 입각한 자연관이 실제로는 조선조 후기까지도 유교적 덕치주의를 구현하고자 했던 왕들이나 관료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 《高麗史》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실, 1982
CD 롬 《고려사》 누리미디어
《舊唐書》, 臺北, 鼎文書局, 點校本
《開元占經》, 長沙, 岳麓書社, 1994
《史記》, 臺北, 鼎文書局, 點校本
《三國史記》, 金富軾 지음, 신호열 역, 서울, 동서문화사, 1978
《拾遺記》, 晉 王嘉, 北京, 中華書局, 1981
《詩經》, 十三經注疏本
《新唐書》, 臺北, 鼎文書局, 點校本
《爾雅》, 十三經注疏本
《資治通鑒全譯》, 貴州人民出版社
《朝鮮王朝實錄》 국역 CD롬, 국사편찬위원회
《增補文獻通考》 권6 《象緯考》, 동국문화사, 1998
《晉書》, 臺北, 鼎文書局, 點校本
《太平廣記》,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1
《漢書》, 臺北, 鼎文書局, 點校本
《後漢書》, 臺北, 鼎文書局, 點校本
《古代占夢術注評》, 北京師範大學校出版社, 1992
江曉原, 《天學真原》, 遼寧教育出版社, 1991
김일권, 《古代中國과 韓國의 天文思想》, 서울대학교종교학과 박사논문, 1999
박성래, 〈이태진교수 “소빙기의 천체현상적 원인 - 《조선왕조실록》의 관련 기록 분석”〉, 《역사학보》 제 149
薄樹人, 《中國天文學史》, 臺北, 文津出版社, 1996

- 박창범·리대일, 〈삼국시기 천문현상 기록의 독자관측 사실 검증〉,
《한국과학사학회지》제16권, 제2호, 1994
- 趙文潤, 王雙懷 지음, 김택중 등 역, 《武則天評傳》, 서울, 책과함께, 2004.
- 이성구, 《중국고대의 주술적 사유와 제왕정치》, 서울 일조각 1997
- 이희덕, 〈高麗時代의 天文思想〉, 《國史館論叢》, 제61 집 1995
, 《韓國古代自然觀과 王道政治》, 《한국연구총서》 54, 1994
- 전상운, 《한국과학기술사》, 서울, 정음사, 1994
- 陳遵媯, 《中國天文學史》 1, 3책, 臺北, 明文書局, 1998
- 최영성, 《한국유학사상사1》,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6,
줄고, 〈武則天 설화에 나타난 예언과 징조〉, 《중국어문학지》 제14집, 2003.

〈中文提要〉

本文旨在研究中国(汉、唐时期)与韩国(三国、高丽、朝鲜时期)正史之中有关太白星出现之天文记录之真正意义. 中国正史所载录之太白星出现, 概包含几种意义. 一, 是星变现象意味著君主死亡, 朝代更替, 战争或叛乱等大灾难即将发生之预示. 二, 是古人曾经仔细观察太白星之动态, 并将其实际应用於战术之上. 三, 是此星象征人臣之居上位者, 亦代表某知名人物, 不凡降生之由来. 在韩国方面, 根据三国至朝鲜时期之天文记录可知, 自三国时期开始, 人们已经独立观察此星之变化, 迄至高丽, 朝鲜时期, 相关记录极为丰富. 值得注意的是, 当时赋予此星之意义与前述中国汉唐之概念, 诚极为类同. 由此可以得知, 韩国实深受中国天人感应说之影响. 详究其由, 当与韩国古代君主为实现儒教德治, 故采纳汉唐“天垂象, 见吉凶”之灾异说观点, 即根据天文异变现象来推测未来人事之想法密切相关.

关键词: 天文, 金星, 太白星, 太白昼见, 太白经天, 星变现象
: 천문, 금성, 태백성, 태백주현, 태백경천, 성변현상.